

Sermon Notes:

서론: 인생은 도전이요 응전이다.

삶에 지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증가
길랭바레 증후군 -> '치유상담연구원 우리' 원장 이미란.
케에르케고르: 하나님과의 관계로 절망의 치유 가능 선언

본론:

1. 본문 배경

가. 요한복음에 나오는 3 번째 표적
나. 때: 유대인의 명절 -> 유월절인지 오순절인지 논란
다. 장소: 베데스다 연못 (자비/은혜의 집)
다. 사건: 38년 된 병자를 고침

2. 예수님과 병자의 대화

가. 초점: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?
나. 믿고 순종할 때 표적을 경험함 (치유)

3. 자리를 피하신 예수님

가. 번거로움을 피하심?
나. 안식일이었기 때문 (율법주의자들)
따라와서 핍박하는 자들 ->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

4. 본문을 통해 얻는 교훈

가. 절망 =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음
나.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: 표적을 통한 메시아 선언
다. 기도의 중요성
라.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-> 죄를 금하고 주님께로 감

결론: 모든 것의 답이요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
믿음으로 나아가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치유를 맛보고 인생의
새로운 길을 일어나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!

암송구절: 요한복음 5장 17절

'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
나도 일한다 하시매'

Memo/Reflection:

1. 현실의 문제가 불가능하다고 절망하는 것은 없는가?
2.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?
3.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?